



일본 정신질환보장 보험상품 최근 개발 동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최근 일본에서는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개인의 니즈가 확산되면서 보험회사들이 계약기간 중 가입자가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현재 7개 생명보험회사가 저보장, 저보험료, 특약상품으로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 상품 수익성이 확보될 경우 보장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등 주계약 상품으로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일본에서는 정신 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비용과 소득을 보상하는 정신질환치료비보험과 정신질환취업불능보장보험을 개인보험 상품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2009년 니혼(日本)생명이 질병치료 등으로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휴업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이후 주로 특약 형태로 판매해 왔음
 -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 인정에 대한 기업 내의 거부감 등으로 단체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함
- 일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괴롭힘, 따돌림 증가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질환 관련 환자 수와 환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라 최근 개인소비자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

〈표 1〉 일본 정신질환 관련 치료 환자 수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외래 환자 수	170.0	223.9	267.5	290	287.8	361.1
입원 환자 수	34.1	34.5	35.3	33.3	32.3	31.3
전체	204.1	258.4	302.8	323.3	320.1	392.4

주: 2011년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제외
 자료: 厚生労働省(2015, 12), 平成26年 患者調査

- 후생노동성 환자조사¹⁾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392만 명으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약 2배 증가함²⁾³⁾
- 또한, 정신·행동장애 질환은 한번 입원하면 장기요양을 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 및 휴업 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인 것으로 나타남⁴⁾

■ 이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의 정신질환 보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특약상품 형태로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관련상품은 대부분이 무해약환급금형으로 개발하고, 장기 입원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정신질환취업불능보험 중심에서 최근에는 정신질환치료비보장보험, 둘 다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6개 생명보험회사가 정신질환 관련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표 2> 일본 정신질환 관련 개인보험 상품 주요내용

(단위: 만 명)

구분	회사명	판매시기	상품명	상품 특징
취업불능보장	니혼생명	2017. 10	닛세이취업불능보험	60일 이상 입원 장해 2급 이상 인정 시 급부
	스미토모생명	2015. 9	미래디자인 1UP	장해 1·2급 인정 시 급부
	아사히생명	2017. 4	수입 서포트보험	60일 이상 입원 시 급부금
치료비보장	Neofirst Life	2017. 11	스트레스성 질병보장	돌발성 난청, 과민성 위장병 등 경증질환도 보장
	AXA Life Japan	2017. 9	멘탈 플러스형	61일 이상 입원 시 급부금
치료비· 취업불능 보장	Zurich Life Japan	2016. 9	스트레스성 질병보장부 취업불능보장특약	최고 10년간 연금·일시금 지급

자료: Nikkei News(2018. 4. 2)

■ 대표적으로 니혼생명은 닛세이취업불능보험을 개발하여 2017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음⁵⁾

- 동 상품은 상해·정신질환⁶⁾ 등으로 6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취업불

1) 2017년 환자조사 결과는 2018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임(厚生労働省, 2015. 12, 平成26年 患者調査)

2) 일본 정신질환 생애유병율이 24.2%로 국민 4명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https://www.jspn.or.jp>)

3)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현병, 우울증, 불안 장애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8조 엔 규모로 추정(平成22年度 厚生労働省(2011. 3), 精神疾患の社会的コストの推計 事業実績報告書)

4) 정신·행동장애 질환 평균 입원일수가 291.9일로 암(19.9일)의 약 15배, 뇌혈관(89.5일)과 비교해도 3배 이상으로 평균 입원일수가 다른 질병보다 현저하게 높음(厚生労働省, 患者調査)

5) 세부내용은 Nissay news release(2017. 8. 10) 참조

6) 대상 정신질환은 알츠하이머, 신경성장애,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발달장애, 알콜 등 정신활성 물질 복용 장애, 다발성장애, 조현병, 신경성 식이장애, 인격장애, 지적장애, 원인불명 장애, 간질, 우울증 등

능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60일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회복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부가 지급됨

- 30세 남성이 60세까지 월 4,205엔 납입할 경우 취업불능 판정 시 매월 월 10만 엔이 지급되는 무해약환급형상품임

■ Neofirst Life⁷⁾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스트레스성 질병보장상품보험을 2017년 11월부터 판매하고 있음

- 동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스트레스성 돌발성난청이나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43종의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180일 기준으로 1회당 최대 5만 엔의 진단급부금을 지급함⁸⁾
- 또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에 의해 30일 이상 요양한 것으로 진단받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1회당 최대 30만 엔, 총 10회까지 요양일사금을 보장함
- 30세 남성이 65세까지 월 1,340엔 납입할 경우 생존기간까지 상술한 진단급부와 요양비가 지급됨

■ 일본 Zurich Life는 치료비와 취업불능을 동시에 보장하는 스트레스성 질병보장부 취업불능보험을 2016년 9월부터 판매하고 있음⁹⁾

- 동 상품은 5대 질병이나 스트레스성 위궤양, 우울증, 조현병, 식사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10개 질환으로 계속해서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1일 5천 엔, 최대 120일까지 입원급부금을 지급함
- 생존기간 동안 취업불능 상태 시 회복 될 때까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최대 10만 엔의 연금 또는 204만 엔~1,200만 엔까지 일시금이 취업불능급부로 지급됨
- 기타 보험계약자 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액,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보장 특약상품 중심으로 정신질환보장 시장을 구축한 후 상품 수익성 확보에 따라 보장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등 주계약 상품으로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kiri**

7) 다이이치(第一)생명 홀딩스 산하 생명보험 자회사

8) 세부내용은 상품팜플릿(neofirst.co.jp) 참조

9) 세부내용은 상품팜플릿(www.zurichlife.co.jp) 참조